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2호 / 2016년 12월



VENTURE
CAPITAL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KVCA 12월 주요일정

일 자	행사명	장 소	비 고
2016.12.02	서울대학교 벤처투자론 멘토링데이	서울대학교	
2016.12.05	기술사업화 컨벤션	서울 코엑스	
2016.12.07	CEO 조찬세미나	오크우드 프리미어	
2016.12.07-09	한중 벤처투자 컨퍼런스	중국 상해	2박 3일
2016.12.07	VC Meeting Day	협회 회의실	
2016.12.08-09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고급과정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1박 2일
2016.12.13	Emerging Technologies Forum & 벤처투자로드쇼	서울 코엑스	
2016.12.14	중소중견기업 M&A컨퍼런스	서울 코엑스	
2016.12.21-27	동남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동과정)	부산 센텀	
2016.12.22	연탄나눔봉사	서울 서초구 우면동	회원사참여

정기구독 신청문의, 기고 보내주실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TEL | 02-2156-2103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2호 / 2016년 12월

| 발행일 | 2016년 12월 10일

| 발행인 | 이용성

| 편집인 | 이의준

| 발행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3층

(TEL: 02-2156-2100)



목 차

뉴스&리뷰

KVCA 소식

- 제3차 윤리위원회
- 코스닥위원장·업계 오찬간담회
- 2016 MEDICA 참관
- 회장단 조찬간담회
- 엔젤투자자·벤처투자기관 간담회

연수원 소식

-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3차-VR산업 분석과정
-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

투자협력·M&A

- 기술혁신개발사업
- M&A 매칭데이
- 벤처투자 로드쇼
- 벤처투자 사랑방
- 제4차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 2016년도 벤처기업확인 500개사 돌파

협회장 동정

- 청년기업가정신재단 GEW KOREA 2016 참석
- 제8회 IBWA 컨퍼런스 참석

회원사 소식

투자유망기업 탐방

이 슈

해외 VC산업 탐방

벤처캐피탈 법률 Q&A

시장동향

10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VC포커스) 벤처캐피탈 바이오/의료 투자 및 회수실적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편집자노트

리더에 대한 단상



01

뉴스&리뷰

NEWS & REVIEW

KVCA 소식

- 제3차 윤리위원회
- 코스닥위원장 · 업계 오찬간담회
- 2016 MEDICA 참관
- 회장단 조찬간담회
- 엔젤투자자 · 벤처투자기관 간담회

연수원 소식

- 벤처캐피탈 스캇 아카데미 3차-VR산업 분석과정
-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

투자협력·M&A

- 기술혁신개발사업
- M&A 매칭데이
- 벤처투자 로드쇼
- 벤처투자 사랑방
- 제4차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 2016년도 벤처기업확인 500개사 돌파

협회장 동정

- 청년기업가정신재단 GEW KOREA 2016 참석
- 제8회 IBWA 컨퍼런스 참석

회원사 소식

투자유망기업 탐방

KVCA 소식

제3차 윤리위원회

11월 2일 본회는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2차 회의 및 이사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VC인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자율협약을 진행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방안 등 진행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회진 사건과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은 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이슈사항을 공유하였다.

코스닥위원장·업계 오찬간담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김재준 위원장과 업계 대표(임원)와의 간담회가 지난 11월 7일 서울 역삼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업계의 이슈를 공유하고 관련의견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거래소 상장유치부에서 2016년 상장현황 및 제도개선 현황에 대해 간략히 발표 후 오찬으로 이어졌다. VC대표(임원) 20여명과 본회 사무국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거래소와 업계가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2016 MEDICA 참관

매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전시회(MEDICA)에 본회가 참관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에서 관련분야 바이어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전문박람회로 VC업계 관계자 15여명이 함께 참관하였다.

회장단 조찬간담회

본회는 11월 17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회장단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올해 9월까지의 벤처투자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제3차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자율협약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협회 운영방안에 대해 회장단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엔젤투자자·벤처투자기관 간담회



본회가 11월 29일 서초동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엔젤투자자·벤처투자기관 간담회에 15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회 이용성 회장을 비롯하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전문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클라우드펀딩 중개사, Micro VC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은 업계의 지속가능한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투자자간 공조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간 소통, 정보교환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연수원 소식

「2016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3차 - VR산업 분석」 과정

일자 : 2016년 11월 10일 (1일 출석)

장소 : 스페이스웨어 대치센터 6층



최근 게임, 테마파크, 쇼핑 등 VR산업을 접목시키는 분야가 계속 생겨나며 업계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과정에서는 VR산업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다음 스팟 아카데미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과정 준비 및 주제 선정을 위해 회원사와 협회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17년 초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 용	강 사
VR산업 글로벌 동향 및 국·내외 핫 이슈	볼레 크리에이티브 대표 서동일 (오쿨러스 공동창업자)
VR콘텐츠 비즈니스 사례	브랜드 아키텍츠 대표 임준영
VR게임 기술실태와 적용 사례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사 송요셉
투자 유치 사례	브로틴 대표 김찬기

2016년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본 교육은 업종별 기업 가치와 사업타당성 분석 사례를 살펴보는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비상장 회사 투자 관련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창업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LP, 학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2박 3일 동안 합숙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 : 2016년 11월 16일 ~ 11월 18일
(2박 3일 합숙)

장소 :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2층
메이플홀



「VC-HR(Venture Capital- Human Resources)시스템 구축 완료」

본회는 안정적인 투자심사 인력 공급을 위하여, 벤처캐피탈 업계로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인력과 벤처캐피탈간의 온라인 채용 매칭 시스템을 구축했다. 취업 희망자의 이력사항 열람, 면접에서부터 채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시스템은 현재 본회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VC-HR 시스템 안내

- 시스템 오픈 : 2016년 12월 1일(목)
- 접속 사이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
- 서비스 대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 주요 내용 : 벤처캐피탈 취업 희망자와 벤처캐피탈사간 온라인 채용 매칭
 - 산업계 경력자 및 대학(원)생 등 구직자 명단 확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열람

2016년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

벤처캐피탈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수교육으로, 올 해 마지막 차수 교육이 진행되었다. 2016년 총 이수 인원은 139명이며, 내년 1차 교육은 2월 말 개최 예정이다.

일자 : 2016년 11월 23일 (1일 출석)
장소 : 스페이스웨어 대치센터 15층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및 ISSU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 이기백
벤처캐피탈 최근 입법동향 및 해외 벤처투자 법령 비교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이종건
청탁금지법 및 사례	단국대학교 교수 김래영
VC 준법감시제도 및 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변호사/팀장 이상화

• 12월 교육 안내 •

행 사 명 : 투자전문인력 양성과정(벤처투자론) - VC멘토링데이

주 최 : 중소기업청

주 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일 자 : 12월 2일(서울대학교)

대 상 자 : 벤처투자론 강의 수강생 및 해당 대학(원) 재학생 중 벤처캐피탈에 관심 있는 학생

행사 개요 : 현직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초빙하여 업계 이슈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 관련 정보 습득,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마련

교 육 명 :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고급과정

운영 형태 : 1박 2일 숙박

일 자 : 12월 8일~12월 9일

대 상 자 :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기획관리 및 경영지원실 담당자 등

과정 개요 : VC 기획·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신청 기한 : 11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교 육 명 : 2016 동남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공통, 필수)

운영 형태 : 5일 출석 + 2박 3일 숙박

일 자 : 2016년 12월 21일~23일, 12월 26일~27일

2017년 1월 11일~13일

대 상 자 : 동남권 창업기관(선도대학, BI), 엑셀러레이터, 기타 등

과정 개요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및 투자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투자협력·M&A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CEO 조찬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9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08년 이후 선정된 투자연계과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부하직원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연사 : 박태현 / 팀과 리더 이야기 대표)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CEO 조찬세미나는 인문·경영·과학분야 명사초청 네트워킹 포럼으로, 매월 초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개최 될 예정이다. 다음 조찬세미나는 12월 6(화)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17년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대선 이후 기업환경 점검’(연사 : 김완중 /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을 주제로 개최된다.



실무자 역량강화 세미나

본회는 지난 11월 10일과 11일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엘리시안 강촌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기술사업화 전문가 특강, 투자연계과제 운영발전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11월 VC Meeting Day 개최

2016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VC Meeting Day가 11월 16일과 11월 30일에 개최되었다. 금번 행사는 투자심사역과 선정기업 투자유치담당자가 1:1로 만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행사에는 20개사의 기업과 심사역이 참석하였다. 12월에는 15일과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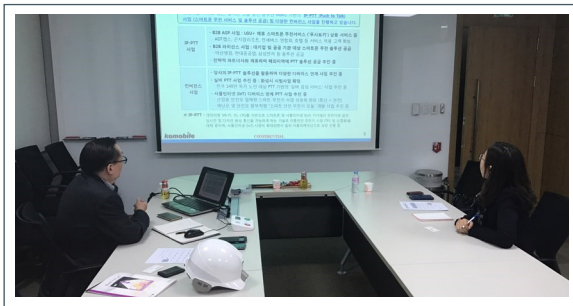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과제발굴 TF 킷오프 미팅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투자유망 전략분야 과제발굴을 위한 과제발굴 TF 킷오프 미팅이 지난 11월 18일 본회에서 개최되었다. 투자심사역으로 이루어진 과제발굴 TF는 12월까지 신산업, 주력산업 등 40대 전략분야에 대해서 기계·조선·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융합기술, 에너지·자원,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6개 분야로 나누어 투자유망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M&A 활성화 지원사업

M&A 매칭데이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15일 역삼동 GS타워에서 ‘M&A 매칭데이’를 개최하였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M&A 매칭데이’는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등록된 M&A 희망 매도·매수기업 및 자문기관이 참여하는 매칭상담 행사로 사전 매칭작업을 통해 성사가능성이 높은 매도·매수기업을 1:1 매칭함으로써 M&A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총 10개사가 참가하여 각 기업별로 30~40분가량 M&A 상담시간을 가졌으며, 제품시연, PT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진행되었다. 협회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종합하여 향후 매칭데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M&A 매칭데이를 통한 M&A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로드쇼

대구·경북지역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지난 11월 17일에 대구·경북 벤처투자로드쇼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대구·경북소재 유망 중소기업 19개사, 벤처캐피탈 11개사, 엔젤투자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방유망기업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안내

본회는 지난 한해 수도권과 지방간 투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벤처투자 로드쇼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로드쇼를 통해 발굴된 전국의 유망기업을 한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방유망 벤처투자로드쇼”는 12월 13일 서울 COEX에서 “Emerging Technologies Forum”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 장소 :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 일자 : 2016년 12월 13일

※ 문 의 : 투자협력팀 김재익 연구원 (02-2156-2134)

벤처투자 사랑방

본회에서 개최한 11월 벤처투자 사랑방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투자기관의 심사역이 1:1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경영을 하는 데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 투자유치 가능성 진단, 자금조달 방법 및 IR 자료보완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역은 새로운 기업발굴 및 기술동향 이해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이다.

11월 벤처투자 사랑방은 22일과 25일에 진행되었다. 기업은 ICT, 바이오·의료, 전자·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사가 참석하였고, 국내외 벤처캐피탈은 네오플릭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자프코아시아 등 총 6개사 참석한 가운데 상담이 이뤄졌다. 2016년 마지막 벤처투자 사랑방은 오는 12월 20일에 개최되며, 2017년에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투자 사랑방 홈페이지([Http://cafe.kvca.or.kr](http://cafe.kvca.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차 유망 환경산업 투자유치 설명회(글로벌)

11월 30일 본회에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우수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제4차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산업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투자기관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송헌인베스트먼트, 엘앤에스벤처캐피탈 등 5개 투자기관 등과 환경기업 9개사가 참석하여 투자상담 및 IR을 진행하였다.

본회는 환경부에서 출자하여 결성하는 환경산업펀드를 바탕으로 국내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벤처투자기업 500개사 돌파

현재 벤처업계에서는 전체 벤처기업 중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하 벤처투자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1월 말 기준, 벤처투자기업은 1,142개사로 전체 벤처기업 중 3.45%를 차지한다. 이는 약 2년 전부터 그 수와 비중이 감소세 없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벤처투자 붐이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벤처투자기업 중 약 46%가 2015년도 이후 투자유치를 한 기업임이 이를 반증한다.

올해에도 벤처펀드 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유치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벤처투자기업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벤처투자기업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자본금대비 10%이상의 금액을 투자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확인 후에는 각종 세금, IPO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으며,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도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협회장 동정

GEW KOREA 2016 참석



2016 세계기업가정신주간(Globla Entrepreneurship Week)을 맞아 개최된 ‘GEW KOREA 2016’ 1일차 개막행사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11월 14일 웨라튼서울팔레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국내외인사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청년기업인상 등 시상식에 이어 ‘누가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한 시간 가량 뱀스칼리지 다니엘 아이젠버그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이후 환영오찬으로 마무리하였다.

제8회 IBWA 컨퍼런스 참석



11월 16일 IT여성기업인협회가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8회 IBWA 컨퍼런스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VIP로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ICT 관련 최신 기술 정보 동향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정부 등 IT정책관계자, IT여성기업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원사 소식

신규가입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웰릭스캐피탈	장세영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7층 지밸리비즈플라자	02-851-6300	02-851-6301	신기술사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대성창업투자	김영훈, 서학수	김영훈, 강명구
이수창업투자	이 석 주	김 대 성

사무실 이전

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디이브이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3동 323호	02-3452-3640	02-3452-3646
수림창업투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2층 (여의도동, 율촌개발주식회사)	02-761-8600	02-6959-3352
지애텍벤처투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현빌딩 9층	02-549-8045	02-549-8060

• 2016 벤처창업대전 투자활성화부문 수상자 •

<p>산업포장</p>  <p>김종필 한국투자파트너스(주) / 부사장</p>	<p>대통령 표창</p>  <p>문주철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부사장</p>	<p>국무총리 표창</p>  <p>윤윤중 한국벤처투자(주) / 책임심사역</p>	<p>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p>  <p>송영석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 이사</p>	<p>중소기업청장 표창</p>  <p>김영재 한국산업은행 / 차장</p>
--	--	---	---	---



[대교인베스트먼트]

콘텐츠 기업에 잇따라 투자했던 1호펀드(‘대교신성장벤처투자조합’·2호펀드(DKI GrowingStar 1호 투자조합) 모두 장밋빛 회수 수익률을 예고하면서 최소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창업투자]

삼성벤처투자 출신 강명구 상무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강상무가 삼성벤처투자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담았던 직책은 하이브리드 투자팀장이다. 본래 삼성벤처투자에서 처음으로 맡았던 핵심 보직은 최고재무책임자(CFO)였지만 투자 일선에서 뛰는 심사역의 역할을 맡았었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두 업체 모두 연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이는 2000년 이후 17년만이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170억원 규모의 한국IT펀드(KIF)투자조합을 결성한다. 첫 KIF투자조합인 만큼 ICT 융복합 분야를 정조준 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스타트업 특화펀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K-글로벌 300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계획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

300억원 규모의 한국IT펀드(KIF)투자조합을 결성했다. 기존 KIF투자조합과 달리 두 번째 투자조합에서는 ICT와 메디컬·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표펀드매니저는 채정훈 상무(본부장)가 맡았다.

[소프트뱅크벤처스]

실시간으로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스펙클립스에 투자했다. 인터베스트와 메가인베스트먼트 등 총 3개 기관과 함께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의료 관련 분야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송현인베스트먼트]

연내 결성 완료를 목표로 3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말 한국IT펀드(KIF)의 올해 인수·합병-세컨더리 출자 사업의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돼 170억원의 출자를 약속받았다. 나머지 130억원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유한책임출자자로 참여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

[스틱인베스트먼트]

보툴리눔 독신(보톡스) 전문기업 휴젤의 자회사인 아크로스의 지분 290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인수자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송현인베스트먼트와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등이다.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750억원 규모의 한국IT펀드(KIF)투자조합을 새로 결성했다. 앵커 LP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우리은행·경남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함께 출자했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이비케이-아주 스타시커스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디티앤씨가 발행하는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디티앤씨가 상장전 투자하여 상장이후 총 430억원 가량을 회수한 후 추가투자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지난 2015년 초 마스크팩 제조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의 전환상환우선주 40억원 어치를 인수하였는데 2년만에 4~5배의 수익 달성을 거둔 전망이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인수합병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에서 배성한 이사를 영입했다. 배 이사는 투자 2본부에 배치된 후 주로 소병하 공동 대표와 함께 M&A 업무에 대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양기석 부회장이 신임 대표직을 수행하고 황상운 전 대표는 고문으로 물러났다. 양 신임 대표가 유안타인베스트먼트에 영입된 지 1년 반 만이다.

[유큐아이투자파트너스]

유큐아이의 포트폴리오사인 넥스지오, 모비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등이 코스닥 상장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들 세 기업 모두 상장 예심 결과가 나오는데로 관련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유큐아이는 상장 이후 회수전략을 짜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출자하는 공공기술기반펀드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은 300억원이며 특구재단의 출자금액은 150억원이다.

[케이큐브벤처스]

'카카오 성장나눔게임펀드'와 '카카오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통해 게임 개발사 플레이스퀘어에 15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투자는 플레이스퀘어가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2012년 처음 투자했던 넷툰이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4년만에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CCVC-부산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악어스캔의 전환상환우선주 7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악어스캔은 전자문서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며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현대기술투자]

지속적인 운용인력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한국IT펀드(KIF)가 공고한 인수·합병(M&A)-세컨더리 펀드에 도전할 때도 이 같은 운용인력 부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망기업 탐방

이번호에서 소개하는 투자 유망기업은 2016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으로 사용자 취향에 맞는 웹툰, 만화, 애니 개인화 추천 서비스 '라프텔'을 운영 중인

(주)라프텔 (대표 김범준)입니다.

기업소개

라프텔은 내 취향에 맞는 만화를 합법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네이버 북스의 108배에 해당하는 사용자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정교한 만화 추천 엔진으로서 월 300만명에게 만화 소식을 전하는 국내 최대 규모 만화 정보 페이지를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4

10 법인 설립

02 베타 서비스 공개 (Web)

06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아이템 사업화 선정

12 K-ICT 차세대 미디어 대전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분야 우수상

12 K-Global Startup 300 기업 선정

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02 벤처 인증 취득

03 Android / iOS App 출시

04 투자연계형 기술혁신 개발사업 선정

05 K-Global DB-Stars 선정

09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후속지원사업 선정

10 프라이머시즌4 TIPS 연계 투자

2015

2016

핵심인력

김범준 대표	연세대 컴퓨터과학 석사	- 서비스 개발 경력 4년
박종원 연구소장	연세대 수학과 석사	- 빅데이터 경력 5년
신의철 개발자	연세대 컴퓨터과학 박사	- 웹 접근성 연구 5년
김남희 마케터	연세대 문헌정보학 석사	- 서비스 기획 / 마케팅 경력 4년
이진우 개발자	고려대 컴퓨터과학 학사	- 개발 경력 9년
이승훈 기획자	상명대 법학과 학사	- UX 기획 및 QA 경력 2년

자체 제작 만화 추천 엔진

라프텔의 만화 추천 엔진(CF와 CBF로 구성된 Hybrid 방식의 추천 엔진)은 수 많은 작품 중 독자가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찾아 최적의 루트로 연결해 주는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미디어로써 가능성 인정받아 언론에 소개, K-ICT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상 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추천 엔진에 대한 기술력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에 선정되었으며, 딥러닝 영상 분석에 대한 기술력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TIPS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네이버 북스 만화 평가의 108배에 해당하는(국내 최대 약 430만개), 만화 작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CF는 추천 알고리즘의 다양한 상수 및 변수 값 보정을 통한 최적화로 RMSE 0.9를 달성, 넷플릭스와 유사한 추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만화에 특화된 라프텔의 CBF는 Netflix의 Alt-Genre처럼 수백만 경우의 수로 조합되는 17개 타입, 1700개의 태그 셋으로 구성된 만화 속성 데이터와 '어떤 페이지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지', '미디어 타입 별 반응 패턴' 등 다양한 사용자 액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족도 높은 추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수집한 사용자 취향 분석 데이터와 딥러닝 영상 분석을 통해 추출한 작품 정밀 분석 데이터를 통해 정밀 타겟 광고 시스템을 구현하여 콘텐츠 소비의 장벽을 낮추는 게 목표이다.

만화 추천 엔진 개요

다양한 플랫폼들

네이버 웹툰 / 다음 웹툰 / 레진코믹스
올레웹툰 / 대원씨아이 / 학산문화사
서울문화사 / YES24시 / 애틀플러스
애니맥스 등등

자동 크롤링 및 정리

체계화된 작품별 정보

작품 제목
연재처
유료/무료
완결/미완결
작가
제작사

+

만화에 특화된 추가 요소 정리

미디어 타입
분위기
소재
캐릭터 특성
장소
그림체

Content-Based Filtering(CBF)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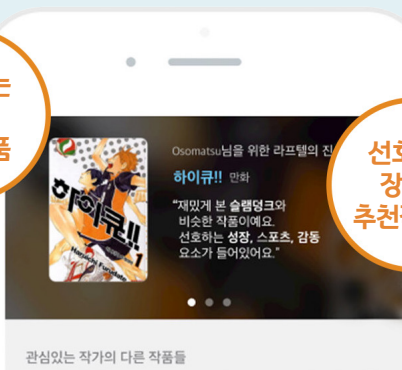
사용자 평가, 행동로그 수집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최소 데이터
10만개 (이상 수집)

빅데이터 분산처리 (Spark 사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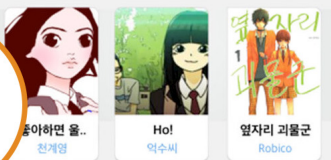
CF(Collaborative Filtering)와 CBF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별 취향 정보 추출
및 개인화 추천

좋아하는
작가의
다른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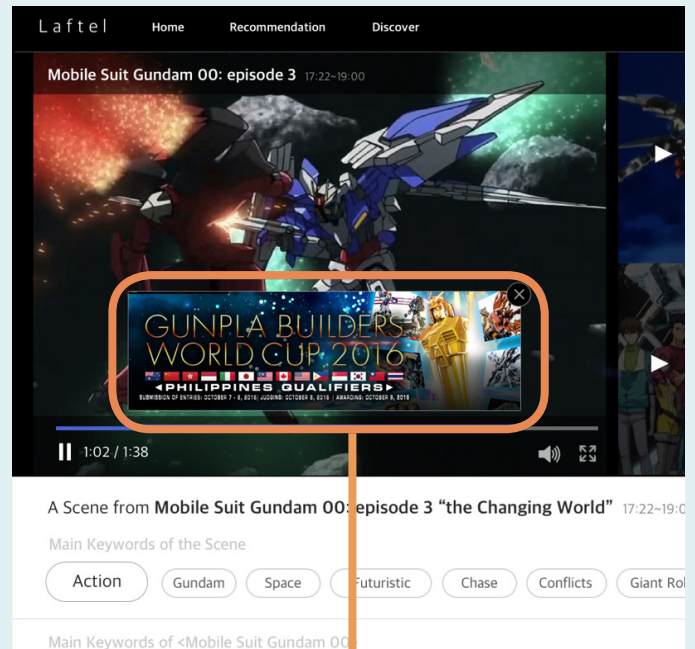
선호하는
장르의
추천작 모음

선호
제작사의
애니 추천



재밌게 본
작품과 비슷한
작품

타겟 광고 설명



Mobile Suit Gundam 00 S1

Lina Kim (id=124,078)

Robots

Fight

Action

SF

Space

Growth

Gundam

Fantasy



Female

23 years old

+Fantasy

+Gundam

+Action

+Webtoon

+Fight

-Harem

인쇄 만화가 디지털 만화로 전화되는 격변기 속에서 연 19%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만화시장은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 이어가 없는 상황이다. 라프텔은 시장에서 독자적인 만화 추천 엔진 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수집한 사용자 취향 데이터와 딥러닝 영 상분석을 통해 추출한 작품 분석 데이터를 통해 정밀한 타겟 광고시 스템을 구현하며 성장을 꾀하고 있다.

※ (주)라프텔은 본회가 운영하는 2016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 연계과제 선정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라프텔 김범준 대표(02-2132-8133, 02-6332-5814)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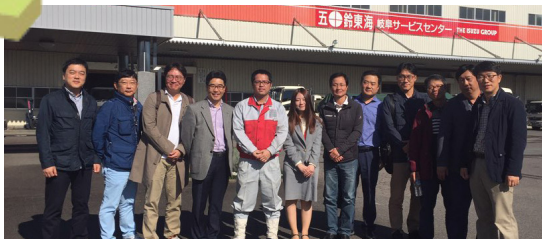


02

이슈 ISSUE

해외 VC산업 탐방
벤처캐피탈 법률 Q&A

일본 나고야



2016년 11월 기획위원회의 해외 VC산업 탐방은 아이치현(愛知) 나고야시(名古屋市)로 진행되었다. 나고야시는 아이치현의 현청소재지이면서 일본 3대성의 하나인 나고야성이 있고 수많은 역사 인물들

의 출생지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서쪽의 오사카시(大阪市)와 약 180km, 동쪽의 도쿄도(東京都)와는 38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 목적 보다는 토요타자동차 공장으로 인해 도시 이름까지 바꾼 토요타시(豊田市)와 현 내 다수의 자동차 및 철강 업체와 관련된 비즈니스 출장이 더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탐방은 일본 전통 제조업의 중심 지역에서 벤처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구성되었다.



안민주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상무

[본회에서 운영중인 '기획위원회'의 하반기 워크숍을 일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현지 산업 및 투자현황을 방문기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五十鈴東海 방문



아이치현 안조시(安城市)에 소재하고 있는 코일센터(Coil Center)로서 五十鈴 그룹의 계열사이다. 五十鈴는 발음이

“이스즈”여서 처음 방문 전 회사명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완성차 메이커인 이스즈자동차의 계열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그룹이었다. 그룹의 역사는 1916년에 창업한 ISUZU자동차가 1947년에 창업한 五十鈴 보다는 30여 년 앞선 것으로 보인다.

五十鈴 그룹은 그룹 주요 사업을 철강/물류/솔루션/생활서비스의 4대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철강 분야가 그룹의 중점 사업이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이스즈동해는 신일본제철의 냉연 및 표면처리 강판을 공급받아서 고객(주로 자동차 회사)이며 토요타 매출비중이 54%로 높은 편) 요청에 따라 절단 가공한 뒤 공급하는 회사로서 연간 생산 규모가 58만톤 정도이므로 한국의 일반적인 코일센터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TOM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업무 전산화 솔루션을 통해 수주부터 가공이나 배송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룹 내 솔루션 사업부와 물류 사업부가 있어서 전체 사업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었다.

공장 및 사무실 투어를 통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과거 한국의 제조업이 그렇게 닳고 싶어 했던 이상적인 모델이 그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더 새로운 “改善(kaizen)”을 하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이었다. 사실 일본 제조업에서 만들어 낸 다양한 관리 기법들을 한국의 제조업에 접목시키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면의 사고 체계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일본이기에 가능한 일들을 한국 근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답답함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투어 후 가진 짧은 Q&A 시간에 타이트한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없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오히려 답변자가 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날로그의 최강자였던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었던 배경 중 하나가 개개인의 마음가짐 때문이었고 이는 결국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개선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사무실에서였다. 생산과 영업 관리 현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고 개인별 목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직원들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었고 대부분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 선폭 미세화의 한계에 도달한 뒤에는 3차원 구조 등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만 성능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가 연상되었고 그런 점에서 일본 전통 제조업의 한계 극복이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틀을 깨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서의 효율성만큼은 세계 최강이 아닐까 한다.

愛知 Venture House 방문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주로 보아 왔던 벤처 집적 시설들이 대부분 신축 건물에 우수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

해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사무실 공간과 공통의 회의실 정도만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에서 다소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미국식의 직원 별 독립된 업무 공간은 아닐지라도 개인 별 파티션이 기본인 한국의 사무실 풍경과는 달리 이곳의 직원들은 칸막이 없이 모두 오픈된 책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꽤 생경한 모습이었고 저런 근무 환경이라면 한국에선 직원 모집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치 벤처하우스는 모노즈쿠리(物作り, 장인 정신이 깃든 일본의 제조업을 부르는 말)가 강점인 아이치현에서 IT 벤처 육성을 위해서 현정부에서 2003년 설립한 시설로서 나고야 역에서 가깝고 임대료가 무료여서 지역 내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인 코스로 보였다. 회사에 따라 15m²과 30m²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설립 5년 이내의 기업이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졸업해야 하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장소 제공 외에도 이곳에 상주하는 인큐베이션 매니저가 회사의 경영에 조언을 해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로개척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이곳은 현 내 IT 스타트업에게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2016년 5월 기준 누적으로 94개사가 이곳을 통해 정착에 성공해서 약 63%의 정착율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 중 61개사가 현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하니 아무래도 아이치현의 벤처 육성 정책은 초기 정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듯 했다. 즉,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쿄 등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 하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이탈은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 벤처 하우스 소개에 이어 진행된 대표적 입주기업 소개도 다소 아쉬운 시간이 되었는데 확실하게 한국에서 우리가 만나던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다. 물론 이는 아이치 벤처하우스에 국한된 이야기로서 도쿄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다양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토마츠 벤처서포트의 Morning Pitch, 사무라이 스타트업 아일랜드 등)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므로 이곳 분위기만으로 현재의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벤처하우스 발표에 앞서 소개 받은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Japan Finance Corporation)의 프로그램 소개가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의 지원 정책과는 다른 점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명 칭	자본성 론(資本金 Loan)	
대 상	소규모사업자	중소기업
융자한도액	4,000만엔	3억엔
상환기간 (만기일시상환)	5년1개월이상 15년 이내	5년1개월, 7년, 10년, 15년
융자기간별 이율 (사업실적에 따라 매년 재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1개월~7년 → 5.5%, 3.2%, 0.9% 7년~9년 → 5.85%, 3.4%, 0.9% 9년~12년 → 6.25%, 3.6%, 0.9% 12년~15년 → 6.5%, 3.7%,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1개월 → 4.25%, 3.2%, 0.4% 7년 → 4.75%, 3.6%, 0.4% 10년 → 5.1%, 3.85%, 0.4% 15년 → 5.4%, 4.1%, 0.4%

JFC는 일본 정부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정책 금융기관인데 모든 지원이 융자(Loan)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융자가 5년1개월부터 15년까지 장기이며 기간 중에는 이자만 부담하게 되고 회사의 사업 실적에 따라 매년 3가지 이자율 중 한 가지가 적용되는 친기업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사업자인 경우 최대 4천만엔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융자기간이 12년~15년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매년 부담하는 이자율이 6.5%, 3.7%, 0.9% 중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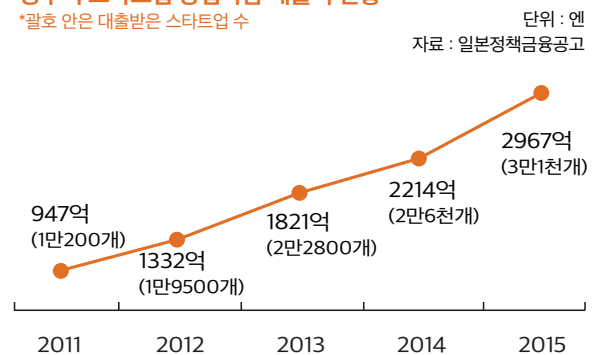
정해진다. 즉, 실적이 부진할 경우 매년 0.9% 이자율을 적용 받고, 실적이 호전될 경우 다시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는 구조다. 또한 공공이 지원해 준 금액은 회계적으로 대출에 해당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 협상 시에 이 금액만큼은 자본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융자를 “자본성 론”이라고 부른다.

JFC의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3만1천개 기업에 2,967억엔이 대출되어 있다고 하니 1개 기업당 평균 1천만엔이 안되는 소액 대출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 연간 지불해야 할 이자 액수는 약 86천엔으로 기업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돌이켜 보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벤처 산업의 한계와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현재까지의 초반 성적표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들의 철저한 기업이 정신이 도쿄를 중심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는 스타트업 열풍과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전성기를 또 다시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벤처 기업이나 VC들은 꼭 한 번씩 신주쿠에서 매주 목요일 이른 아침에 개최되는 모닝피치(Morning Pitch)의 열기를 직접 느껴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자금 대출액 현황

*괄호 안은 대출받은 스타트업 수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협회 관계자분들과 에이티넘 김성섭전무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벤처캐피탈 법률 Q&A

벤처투자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해석코너입니다.

피투자기업이 감사 서면동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책임 및 보통주만의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1. 통상 VC 투자계약서 상에는 피투자기업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계약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¹⁾으로 ① (이해관계인 및/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주식매수청구권²⁾, ② 위약금³⁾, ③ 위약벌⁴⁾, ④ 상환청구권⁵⁾, ⑤ 일반적인 손해배상⁶⁾ 등의 규정을 통하여 위약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됨.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투자자를 위한 권리 보장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행사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사항들이 존재함.
2. 만일 피투자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를 투자를 받고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를 제외한 보통주 감사만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감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할 때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② 불이익을 받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감사결의를 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봄.
3. 다만, 위 2.의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계약서 위반의 책임을 피투자기업 등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문언적으로는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 1.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과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서 전체의 취지 및 손해 발생 여부를 고려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상환전환우선주 형태의 종류주식 투자를 전제로 함.

2) 이 경우 피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에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을 요건으로 하게 되어 법률적으로는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의미를 갖게 됨.

3) 위약금의 경우에는 민법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이 가능할 수 있게 됨.

4) 위약벌을 병행적으로 기재하거나 단독으로 위약벌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라 생각하는 금액(투자금에 일정 금액을 합한 금액 상당)을 보전 받고자 하는 형태의 계약서가 있음.

5) 상환청구권의 경우에도 상환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음.

6) 주금의 납입을 전제로 하는 투자계약서의 경우 주금 납입 이후에는 납입한 주식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확인 소 외에 이를 무효로 하는 방법(계약의 해제 등)이 없다는 점에서 해제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는 일견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SAFE를 통한 투자의 가부 및 해외투자 가능성

1. SAFE, CN에 대하여는 국내법적인 도입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다만 해외에서 SEED 단계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투자방식에 따라 국내 투자기구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2. 이에 대하여는 해외투자의 경우 명시적인 투자방식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폭넓게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다수 활용되고 있음. 최근 SAFE의 투자신고에 대하여 유관기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됨.

주요 상법 개정내용

내 용	규 정	신구조문 대비	
		개정 전 법률	개정 법률
삼각분할합병 제도 도입	「상법」 제530조의6 ④	< 신설 >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합병할 때,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보다 가치 있는 상대방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삼각주식교환 제도 도입	「상법」 제360조의3 ⑥	< 신설 >	회사가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을 완전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보다 가치 있는 상대방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	「상법」 제374조의3	< 신설 >	① 총주주 동의 또는 ② 지분 100분의 90 이상을 상대방이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 가능
소규모주식교환 범위 확대	「상법」 제360조의10 ①	① 발행주식총수 5% 이하, ② 순자산액 2% 이하	① 발행주식총수 10% 이하, ② 순자산액 5% 이하
무의결권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인정근거 명문화	「상법」 제360조의5 ① 제374조의2 ① 제522조의3 ① 제363조 ⑦ 단서	(명문 근거 없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근거 마련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상에 반영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의무 기간 기산점 일원화	「상법」 제374조의2 ①, ②, ④	청구를 받은 날부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자기주식 관련 규정 정비	「상법」 제360의2 등	.	.



03

시장동향 MARKET TREND

10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VC포커스) 벤처캐피탈 바이오/의료 투자 및 회수실적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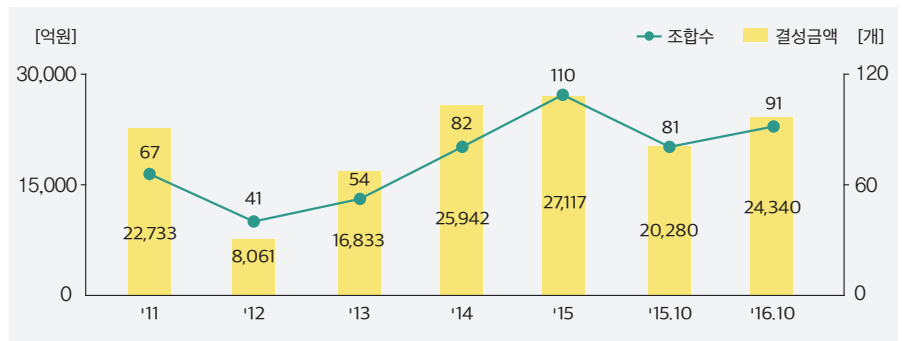
10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2016년 10월에 세컨더리 펀드 3개, 문화·ICT 융합펀드 1개, IT펀드 1개를 포함한 11개 조합(창투조합 8개, KVF 3개)이 2,447억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되었고, 이 중 세컨더리 펀드 3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결성
- 10월에는 총 194건(133개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1,718억원으로 전년 동월(1,663억원) 대비 55억원(3.3%) 증가
- 10월 회수는 주식매각/상환을 통한 회수가 53.7%로 가장 높았으며, IPO를 통한 회수비중이 19.6%를 차지

투자재원

■ 조합결성

금년 10월까지 91개 조합, 24,340억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81개 조합, 20,280억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10개(12.3%), 결성금액은 4,060억원(20.0%) 증가한 수치이다.



■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 금년 10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 25.7%, 벤처캐피탈이 14.6%, 일반법인 14.5% 등의 순이다.
-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모태펀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3.0%로 전년 동기(56.8%) 대비 6.2%p 증가하였다.

[단위 : %]

조합원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0	2016.10
정책기관 (모태펀드)	16.9 (11.7)	32.8 (24.9)	32.6 (31.4)	16.7 (14.4)	31.6 (23.6)	29.4 (22.2)	27.5 (21.7)
금융기관 (산은/정금)	23.6 (17.6)	19.9 (7.4)	26.4 (16.2)	22.3 (12.3)	22.4 (4.1)	23.0 (2.5)	25.7 (7.7)
연금/공제회	21.2	10.9	8.4	20.4	4.3	4.3	8.9
벤처캐피탈	13.4	19.7	13.1	11.4	11.5	12.9	14.6
일반법인	12.3	11.7	15.4	9.8	14.0	13.1	14.5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7.9 (0.0)	1.6 (0.0)	1.0 (0.0)	12.8 (11.1)	10.6 (9.2)	12.0 (11.3)	6.0 (1.8)
개 인	0.8	0.9	1.8	3.4	3.5	2.9	1.6
외국인	3.9	2.5	1.3	3.3	2.1	2.4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 아이 엠 엠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는 올해 KIF가 선정한 위탁운용사(GP) 중 첫 번째 펀드를 결성하였다. 중점투자분야는 K-ICT 10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산업 분야다.
- 컴퍼니케이 - 컴퍼니케이는 약 400억원 규모의 '컴퍼니케이 문화·ICT 융합펀드'를 결성하였다. 애니메이션, 웹방송,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등 유망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 2016년 9월까지 80개가 결성된 조합은 10월에 11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세컨더리 펀드 3개, 문화-ICT 융합펀드 1개, IT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 10월에 결성된 세컨더리 펀드 3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세컨더리 투자비중이 펀드의 6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 출자 없이 펀드 결성 가능)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결성되었다.
- ▷ 결성금액별로는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의 '2016 KIF-IMM 우리은행 기술금융펀드'가 750억원으로 가장 컸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컴퍼니케이 문화-ICT 융합펀드',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원익 2016 Hidden Opportunity' 펀드가 각각 400억원, 300억원으로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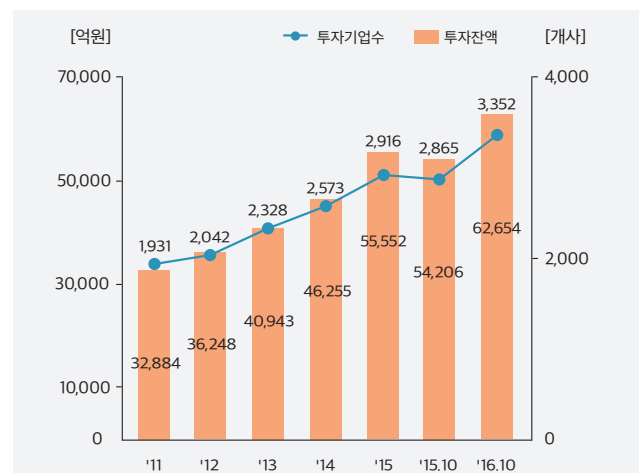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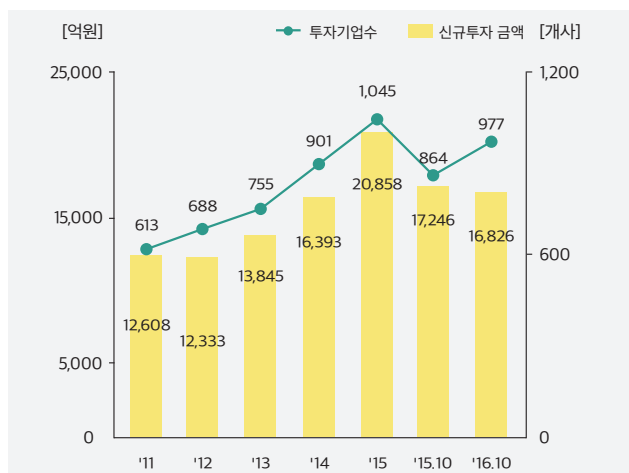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모태
플래티넘기술투자	창투조합	경기-KT-유진 슈퍼맨투자조합	210	일반	중소/벤처일반	X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창투조합	컴퍼니케이 문화-ICT 융합펀드	40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O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코그니티브 1호 투자조합	101	일반	중소/벤처일반	X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P&I 문화기술 투자조합	201	문화	문화 기타	O
이수창업투자	KVF	ISU-세컨더리1호투자조합	61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X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KVF	P&I-L&S 세컨더리 투자조합1호	200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X
원익투자파트너스	창투조합	원익 2016 Hidden Opportunity 펀드	300	일반	중소/벤처일반	X
캐피탈원	창투조합	캐피탈원 롯데-iMBC 콘텐츠 투자조합	6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X
대한투자파트너스	KVF	대한 Small Secondary 투자조합 1호	44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X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2016 KIF-IMM 우리은행 기술금융펀드	750	일반	IT	X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에스비아이-케이아이에스 2016-1호 투자조합	120	일반	일반 기타	X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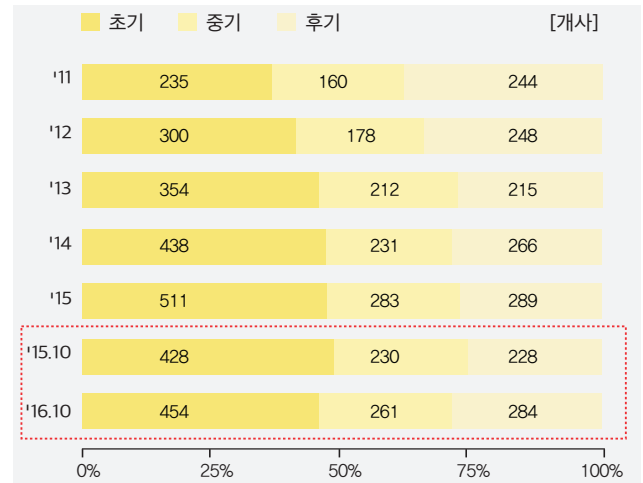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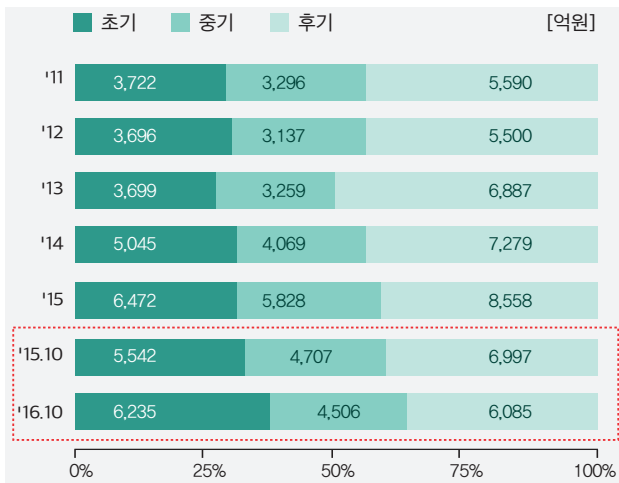
■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잔액

- ▷ 금년 10월까지 신규투자는 16,826억원으로 전년 동기(17,246억원)대비 2.4% 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977개사로 전년 동기(864개사) 대비 13.1% 증가하였다.
- ▷ 10월에는 톨젠이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세틀뱅크, 제노포커스, 민앤지, 동방메디컬 등의 순이었다.
- ▷ 투자잔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10월까지 3,355개 업체에 6조 2,654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10월까지 초기기업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32.2%) 대비 4.9%p 증가한 37.1%를 기록하였으며, 후기기업 36.2%, 중기기업 26.7% 순으로 투자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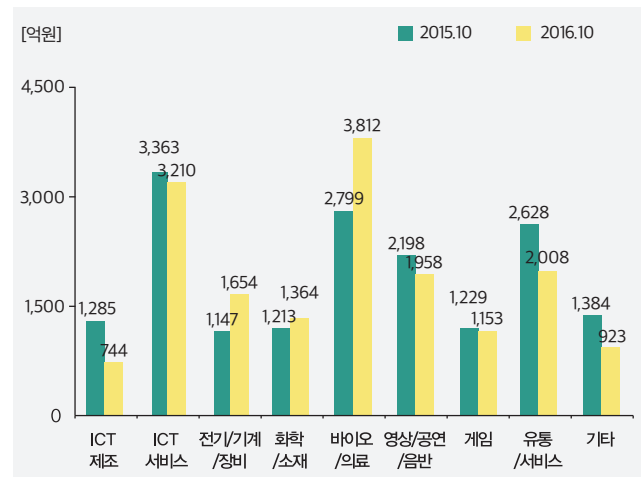
■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3,812억원, ICT서비스 3,210억원, 유통/서비스 2,008억원, 영상/공연/음반 1,958억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01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기계/장비 분야도 507억원이 증가하였다.

▷ 바이오/의료 분야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2.6%를 차지하며 지난해 투자 분야 1위였던 ICT서비스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0	2016.10
ICT제조	1,754	2,099	2,955	1,951	1,463	1,285	744
ICT서비스	892	918	1,553	1,913	4,019	3,363	3,210
전기/기계/장비	2,966	2,433	2,297	1,560	1,620	1,147	1,654
화학/소재	1,266	1,395	989	827	1,486	1,213	1,364
바이오/의료	933	1,052	1,463	2,928	3,170	2,799	3,812
영상/공연/음반	2,083	2,360	1,963	2,790	2,706	2,198	1,958
게임	1,017	1,126	940	1,762	1,683	1,229	1,153
유통/서비스	1,270	608	1,092	2,046	3,043	2,628	2,008
기타	427	342	593	616	1,668	1,384	923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7,246	16,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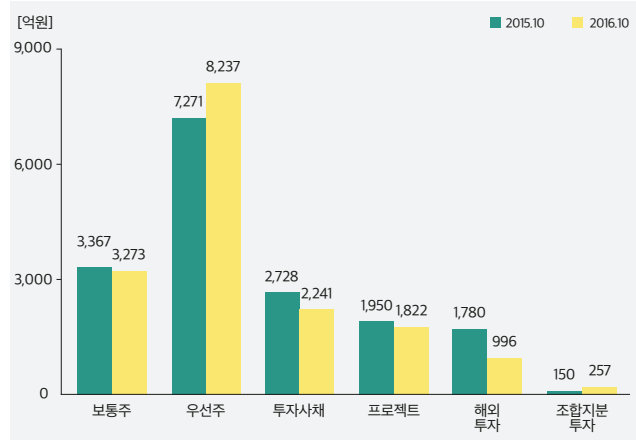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8,237억원으로 전체투자의 48.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6.8%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84억원 감소하였다.
- ▷ 우선주의 투자가 전년 동기(42.1%) 대비 48.9%로 확대된 반면, 보통주의 투자는 19.5%로 전년 동기(19.5%)와 같은 수준이었고, CB/BW 투자 비중은 13.3%로 전년 동기(15.8%) 대비 2.5%p 감소하였다.
- ▷ 지역별로는 서울(54.5%)을 비롯한 수도권(77.5%)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대광역시 9.9%, 지방 6.7%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도 35개사 996억원이 투자되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0	2016.10
보통주	3,454	2,403	3,425	3,297	4,226	3,367	3,273
우선주	4,439	4,887	5,038	6,103	8,786	7,271	8,237
CB/BW	2,061	1,833	3,049	3,276	3,272	2,728	2,241
프로젝트	2,247	2,459	1,944	2,681	2,471	1,950	1,822
해외투자	407	751	389	1,036	1,951	1,780	996
조합지분투자	0	0	0	0	152	150	257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7,246	16,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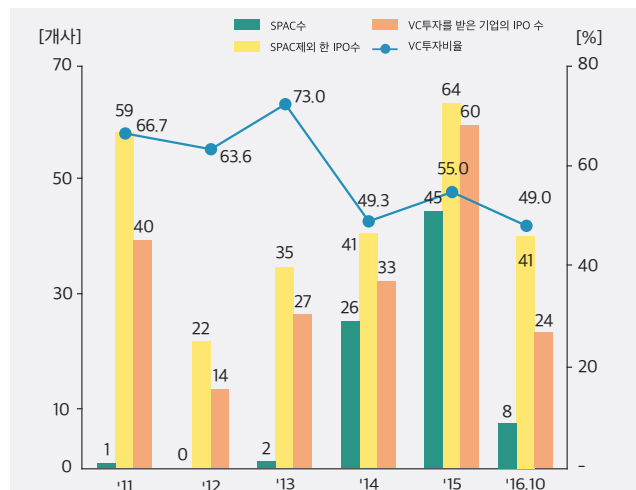
투자회수

■ 유형별 회수

- ▷ 10월까지 회수원금은 8,342억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5.5%로 가장 높았고, IPO가 30.0%, 프로젝트 17.9%였다.
- ▷ 특히, 10월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105건의 거래를 통해 410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매각을 통한 회수가 278억원(6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환 87억원(21.2%)이었다.
- ▷ 10월에는 코스닥시장에 11개사(미투온, 수산아이엔티, 앤디포스, 잉글우드랩 주식회사, 에이치시티,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그레이트리치과기유한공사, 에이치엘사이언스, 코스메카코리아, 인크로스)가 상장되었으며, 이 중 미투온, 수산아이엔티,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코스메카코리아, 인크로스 등 5개사가 VC투자를 받은 기업이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0	2016.10
IPO	1,080	1,220	1,072	1,411	2,784	2,031	2,497
M&A	86	72	22	163	150	104	174
프로젝트	1,102	1,533	1,613	1,639	1,605	1,299	1,488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08	2,655	2,363	3,080	3,724	2,874
	채권	1,044	1,165	1,025	1,311	1,246	789
기타	37	188	736	217	342	286	390
합계	5,957	6,833	6,831	7,821	10,219	7,840	8,342



* 자료 : 한국거래소

VC Focus

벤처캐피탈 바이오/의료 투자 및 회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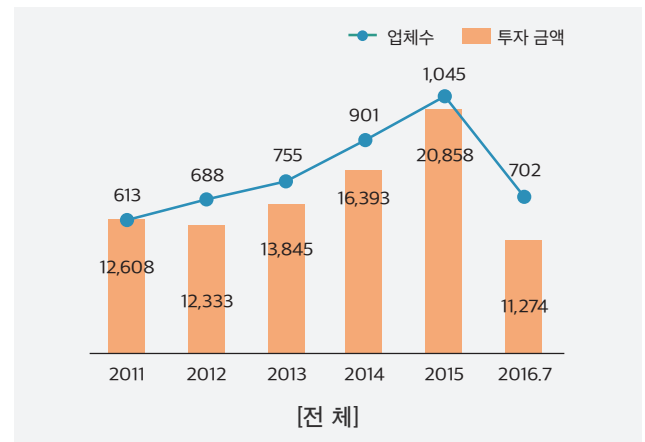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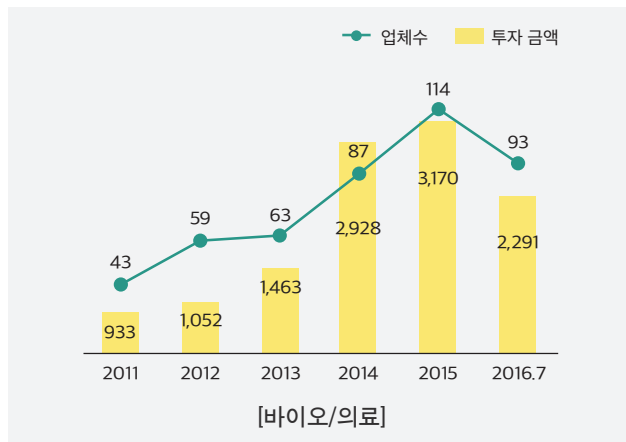
신규투자

▷ 지난 10년간(2007~2016.7)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투자는 14,300억원으로 동기간 전체 신규투자 대비 11.5%의 비중이었다.

▷ 금액기준으로는 2015년 3,170억원으로 최고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7월까지 2,291억원이 투자되었다. 투자 기업수는 2015년 114개사로 처음 100개사를 돌파하며 최고기록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7월까지 93개사였다.

바이오/의료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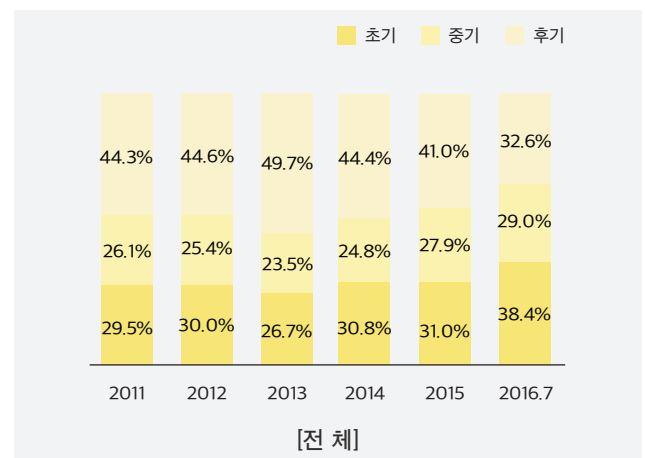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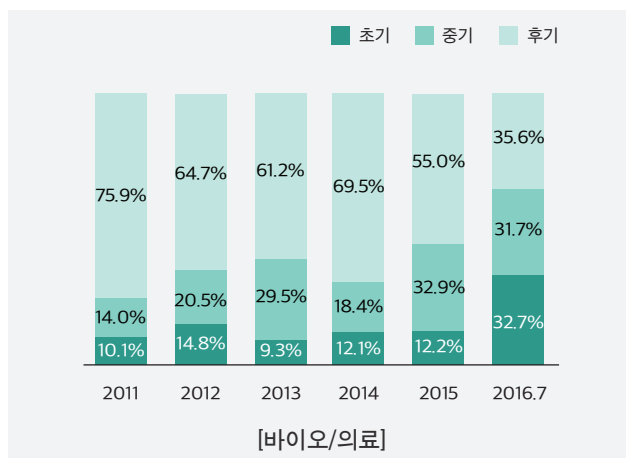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개사]



▷ 바이오/의료 분야는 산업자체의 특성상 연구개발→임상실험→제품출시(매출발생)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경우는 10% 내외 수준이었으나 '16년에는 바이오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등으로 투자 후 회수기간의 단축이 기대되며 초기투자 비중이 30%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로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구(Research) 없이 개발에만 집중

업력별 바이오/의료 신규투자



VC Focus

▷ 2012년을 제외하고 바이오/의료기업에 대한 기업당 평균투자는 전체에 비해 평균 7.2억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바이오/의료 업종이 타업종 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인건비 등의 투자수요 규모가 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당 신규투자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바이오/의료	기업수	43	59	63	87	114	93
	투자금액	933	1,052	1,463	2,928	3,170	2,291
	평균투자금액	21.7	17.8	23.2	33.7	27.6	24.6
전체	기업수	613	688	755	901	1,045	702
	투자금액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1,274
	평균투자금액	20.6	17.9	18.3	18.2	20.0	16.1

투자 회수

▷ 최근 5년간 총 회수금액은 원금 5,070억원, 수익 7,665억원으로 수익률은 151.2%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바이오/의료 투자를 제외한 업종의 전체 회수수익률은 60.6%이다.

연도별 바이오/의료 회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전 체
회수원금	453	549	791	639	1,667	971	5,070
손익	534	279	685	723	3,522	1,922	7,665
수익률	117.9	50.8	86.6	113.1	211.3	197.9	151.2

▷ 특히, 2015년에는 바이오/의료 업종의 수익률이 211.3%로 타업종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ICT서비스도 168.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15년 업종별 회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원금	손익	현금유입	수익률
ICT제조	1,812	624	2,436	34.4
ICT서비스	954	1,603	2,557	168.1
전기/기계/장비	1,803	1,072	2,875	59.5
화학/소재	1,000	810	1,810	81.1
바이오/의료	1,667	3,522	5,189	211.3
영상/공연/음반	1,763	846	2,582	48.7
게 임	304	434	738	142.6
유통/서비스	737	819	1,556	111.1
기 타	206	273	479	132.7
합 계	10,219	10,004	20,222	97.9

▷ IPO를 통한 회수가 220.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으며, 장외매각(주식)이 135.9%를 기록하였다.

※ 단, '15년 M&A실적은 수익률이 443.0%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으나, 바디텍메드와 NH기업인수목적 2호와의 SPAC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한 1건의 케이스

바이오/의료 회수유형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전체
IPO		218.8	97.4	159.1	224.5	278.2	223.2	220.5
M&A		-	-	-	-	443.0	-	443.0
장외 매각	사채	41.9	△19.9	13.1	24.2	9.6	13.4	12.3
	주식	16.9	52.0	61.3	64.0	220.7	183.9	135.9
프로젝트		-	-	0.0	1.4	0.0	-	0.9
기 타		-	54.9	48.9	-	-	-	49.8
전 체		118.0	50.8	86.6	113.0	211.3	198.0	151.2

▷ 2015년말 전체 평균 IPO valuation은 852억원이며 VC 투자기업의 평균 IPO valuation은 1,253억원, 바이오 VC투자기업의 평균 valuation은 1,812억원 수준이다.

IPO Valuation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전체	IPO Valuation	59,548	13,876	31,379	41,027	86,952	35,337
	평균 IPO Valuation	1,045	661	848	622	852	1,309
VC 투자기업	IPO Valuation	43,037	8,547	24,508	26,352	75,196	23,022
	평균 IPO Valuation	1,133	611	908	799	1,253	1,354
바이오 VC 투자기업	IPO Valuation	1,743	-	7,413	4,967	21,741	10,577
	평균 IPO Valuation	436	-	1,235	993	1,812	2,115

▷ 바이오/의료업종의 p-money값은 전체 투자기업의 값보다 확연히 높은 수준으로 '16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 ICT서비스 기업이 5개사가 등장하면서 전체 피투자기업의 p-money값은 바이오/의료업종과의 격차가 줄었으나 중간값은 예년과 같이 약 100억원 높은 수준이다.

Post-money Valuation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전체	평균값	246	211	244	303	352	591
	중간값	145	135	134	125	146	150
바이오 /의료	평균값	261	339	337	552	655	597
	중간값	179	162	135	142	248	248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11월 수시 출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조합수 12개, 출자요청액 729.3 억원, 총결성예정금액 5,91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업체는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결성을 마쳐야 한다.

■ 한국벤처투자 11월수시 출자사업 접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출자요청액	결성예정액
11월 수시	중진	KVF 결성목적	소프트뱅크벤처스	10	800
			네오플렉스	10	600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5	500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2.5	130
			이노폴리스파트너스(유)	9.8	500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0	800
			케이앤티투자파트너스	6	30
		수요자 제안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00	1,000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76	400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공공기술사업화)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	100	150
문화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대성창업투자 화이인베스트먼트	200	500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200	500	
계				729.3	5,910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11월 11일 ‘KSM - 클라우드 시딩 (Seeding) 펀드’의 위탁운용사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 펀드는 클라우드 펀딩 기업과 KRX Start-up Market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의 시딩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펀드로, 클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로서 클라우드 펀딩의 주요 참여자 중 하나인 중기특화 증권사를 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1개사를 선정하여 총 78억원을 지원하며 60%를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으로 투자하고 건별 투자 금액은 클라우드 펀딩 모집금액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접수는 11월 25일까지, 최종 결과는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1월 23일 벤처캐피탈 블라인드 펀드 출자사업의 1차 숏리스트를 확정했다. 제안서를 접수한 14개 벤처캐피탈 중 네오플렉스, 메디치인베스트먼트, 서울투자파트너스, 아주아이비투자, 유안타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케이티비네트워크, 에스비아인베스트먼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등 총 10곳이다. 해당 운용사들은 11월 말 현장실사와 12월 초 2차 PT를 거치며 모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친 후, 최종 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산재보험기금

대체투자상품의 위탁운용사로 벤처펀드 부문에 네오플렉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케이티비네트워크를 선정했다. 3곳의 벤처조합에는 각각 100억원씩을 출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기금의 출자비율은 각 펀드의 30% 이내로, 각 운용사는 주요 기관투자자로부터 30% 이상의 출자확약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출자사업에는 15개사의 벤처캐피탈이 지원하여 5: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04

편집자 노트 EDITOR'S NOTE

리더십에 대한 단상

편집자 노트

리더십,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진작부터 이런 사달이 날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다. 정치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연일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의 메인뉴스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

혹자는 현명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 리더십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 한다.

리더는 나라든 가정이든 집단이나 조직의 운명을 좌우한다. 개인이기는 하지만 부여받은 힘이 크다. 리더는 흔히 '장(長)'의 위치에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을 희생하고 결단력과 공명심으로 집단의 융성과 화합을 이루는 리더가 있는 반면 사익(私益)과 명예만을 챙기고 사라지는 리더도 있다. 이러한 양극의 모습만 있지는 않다. 적당히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이끌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리더도 많다. 즉 개인의 개성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다.

작금의 사태는 리더의 주변관리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시스템과 팔로워십(Followership)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적인 시스템조직보다 사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그러니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모호해 최근의 사태에서 보듯 공권력을 이용한 농단(壟斷)이 가능했던 것이다. 농단의 뜻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시장에서 가장 뭉치 좋은 자리를 찾아 차지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뜻이다. 요즘의 박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한나라의 환관 10명을 일컫는 십상시(十常侍)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명나라의 환관 왕진의 이야기도 재미있다. 환관은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이나 궁문을 지키는 수위, 궁중의 문서전달이나 소식을 알리는 전령, 왕이 외부로 출행하는 경우 수행원의 역할을 하는 거세된 남자를 일컫는다. 왕의 국가통치에 직접 관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환관 왕진은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추고 언변이 좋아 궁중의 실세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산축적과 전횡을 일삼았다. 명나라 황제 영종은 1449년 몽고가 조공에 반발하여 국경을 넘어오자 여러 대신과 장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진의 말을 듣고 직접 전쟁에 나섰다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왕진은 군대가 자신의 고향을 지나면 식량 보급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무리한 이동경로를 택

하도록 했다. 결국 토목보라는 요새에서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였다. 왕진도 피살당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이 무시되고 정실주의(Cronyism)나 연고주의(Nepotism)에 간혀 여론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정실주의는 친구나 지인에게 직업이나 권한을 주고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것이다. 연고주의는 혈연에서 시작되었지만 학연이나 지연으로 전이된 것이다. 양자가 모두 파벌주의(Factionalism)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파벌주의는 불필요한 갈등과 싸움의 근원이 된다. 조직이나 구성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폐쇄적인 정보공유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안으로 끓는다. 이러한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수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그 최후는 당사자들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때문에 명나라 태조는 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폐단이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추밀원이다. 1536년 크롬웰에 의해 설립된 추밀원은 행정사법기관으로써 소수귀족자문기구이다. 추밀원은 추밀원령(Order of council)을 만들어 특정세력의 전횡을 막고자 1855년 독립적 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후에는 공개경쟁시험과 계급단위의 채용시스템을 도입했다. 160년 전에 공공의 약속을 시스템으로 정하고 이를 모두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여 지켜나가도록 한 것이다.

우리 업계도 창투사를 비롯해 150개가 넘는 조직이 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잦은 투자심사인력의 동종업계 이동과 창업 등으로 인해 인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큰 작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크던 작던 리더의 역할이 관건이다. 리더는 먼저 모든 구성원과 고객에 귀를 기울이는 선제적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혼란방지와 성과를 높이는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리다. 따라서 이중 삼중의 검증과 스크린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 리더십은 평소에 딱히 인식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그래서 최근의 사회적 혼란을 계기로 잠시 되새겨 본다.

이의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기술경영학 박사)





본회는 지난 1990년부터 국내 유일의 벤처캐피탈 업계 소식지인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www.kvca.or.kr